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714-530-1367) 로 알려주세요.

종교

### 교황 새 회칙 성차별 논란



▲ 프란치스코 교황 사진=타운뉴스DB

프란치스코 교황이 다음 달 초 발표하는 새 회칙(回勅)이 때 아닌 성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회칙에 '형제' 만 언급됐고 '자매'는 빠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교황청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다음 달 3일 이탈리아 중부 움브리아주의 소도시 아시시를 방문할 예정이다. 교황이 3월 유럽 내 코로나 19 확산 이후 처음으로 사목 방문을 위해 로마를 벗어난다.

교황은 프란치스코 수도회 창시자 프란치스코 성인(1181~1226)의 무덤 앞에서 미사를 주례하고 '프라텔리 투티(Fratelli Tutti·모든 형제)'라는 명칭의 새 회칙을 발표할 예정이다. 회칙은 교황이 전 세계 13억 가톨릭 신자와 주교들에게 전하는 최고 권위의 공식 서한이다.

문제는 '프라텔리 투티'라는 새 회칙 제목이 여성을 배제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탈리아어로 '형제(Fratelli)'란 단어만 있을 뿐 '자매(Sorelle)'란 말이 빠졌다는 것이다. 미국 예수회 소속인 토머스리스 위원은 "새 회칙 제목이 어렵다. 적어도 영어로 번역될 경우 모든 형제자매로 바꾸길 바란다."고 밝혔다.

비판이 커지자 교황청은 "이탈리아어 프라텔리는 '형제'란 뜻이지만 포괄적으로 형제뿐 아니라 자매도 포함하는 단어"라고 해명했다. 안드레아 토르니엘리 교황청 홍보부 편집국장은 "프란치스코 성인의 말씀에서 따온 제목이라 다르게 쓸 수 없었다"며 "결코 인류의 절반(여성)을 배제하는 제목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가톨릭 여성 인권 운동가이자 영국 신학자인 티나 비티는 "교황청의 해명은 솔직하지 못하다"며 "새 회칙은 분명 잘못된 명칭"이라고 비판했다.



### 나는 내 몸의 관리자일 뿐입니다

태어남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도 있습니다.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그렇다면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무엇보다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자신이 직면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에 대한 애착과 미래에 대한 불안 및 과거에 대한 회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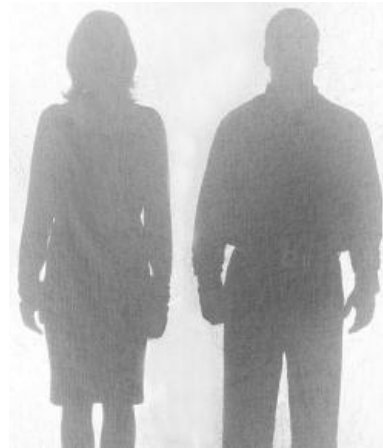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애착과 회한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몸에 대한 애착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몸에 내가 있다는 것, 한 마디로 '나의 몸'이라는 소유의식이 머리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몸은 본래 내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과는 달리 몸은 늙거나 병들고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 나의 소유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몸뚱이가 자신의 소유라는 생각은 한 마디로 착각일 뿐입니다.

나는 단지 몸의 관리자일 뿐입니다. 임시로 관리를 맡아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가꾸어주느라 바쁜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다보니 몸뚱이 시중드느라 바빠 '참 나'를 돌아볼 겨를조차 없습니다.

그토록 애써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좋은 모습 보여주고 좋은 소리 들려주느라 최선을 다하지만,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어찌하지 못합니다. 죽음이란 이렇듯 임시로 맡았던 몸뚱이의 관리시효가 다해가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개운한 일입니까?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놓아두고 떠나라 한다면 무척 서운할 것입니다. 당연히 미련이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관리하고 있다가, 그것을 놓아두고 떠나라 한다면 그다지 서운할 까닭이 없습니다. 미련 없이 떠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한 마디로 소유자에게는 애착이 있기 때문에 미련이 남는 것이고 관리자는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련이 남지 않습니다. 미련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관리하는 과정에서 관리물에 애착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야 할까? 심정으로 떠날 수 있습니다. 떠날 때가 되면 그냥 떠나면 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몸뚱이뿐 아니라, 모든 곳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집, 재물 심지어는 자신의 마음조차 소유했던 것이 아니라 관리했을 뿐입니다. 내 가족도 금생에 가족일 뿐입니다. 내생에는 또 다시 어떤 인연이 되어서 만나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금생에 못 다한 인연이나 한스러운 사연에 대해서도 너무 애달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삼라만상에 못 다한 인연이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죽음도 없습니다. 이 우주는 항상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고 있고 그런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인과의 법칙에 오류란 없습니다. 금생과의 연이 다했으니 가는 것뿐입니다. 다만 지어놓은 업에 따라 또 다른 몸을 받으러 떠나는 것뿐입니다.

영가를 위해 베풀어주는 말씀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습니다.

實相異名 진실한 모습은 이름을 떠났으며,  
法身無跡 본 마음 참 나는 자취가 없지만  
從緣隱現 연(緣)따라 숨거나 나타나는 것이  
若鏡像之有無 마치 거울에 비춰진 형상과 같으며,  
隨業昇沈 업(業)을 따라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이  
如井輪之高下 마치 두레박 줄이 오르고 내림과 같아서,  
妙變莫測 오묘한 변화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참 나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금생에서의 이름일 뿐입니다. 전생에서는 다른 이름이었고 내생에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릴 것입니다. 어떤 것이 진짜 나의 이름이란 말입니까?

참 나는 자취도 없습니다. 지금의 몸은 금생에서의 몸일 따름입니다. 전생에서는 다른 몸이었고 내생에는 또 다른 몸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의 진짜 몸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월호 스님-

## 좋은신문 알찬신문 '타운뉴스'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개인의 작은 권리 하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인간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재미있고 유익한 기사와 한인들의 이민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싣고 격조높은 기사와 광고만을 게재하는 '타운뉴스'와 함께 신문을 만들어 나갈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광고영업직 ..... 0명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E-mail: info@townnewsusa.com

14311 Valley View Ave. #202, Santa Fe Springs, CA 90670

